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지난 12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 제1724회 금요조찬포럼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민형배 당선인 “전남광주, 대한민국 산업 대전환 중심축 될 것”

광주경영자총협회 1724회 금요조찬포럼 특강

“새로운 성장모델 될 것” 통합특별시 미래비전 제시
에너지·AI 결합 성장전략...시민주권정부 구현 약속
“산업기반 구축·기업 유치에 통합지원금 집중 투자”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초대 시장에 당선된 민형배 당선인이 전남의 에너지 자원과 광주의 인공지능(AI) 산업 역량을 결합해 대한민국 산업 대전환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정책 형성과 집행의 중심에 서는 ‘시민주권정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민 당선인은 지난 12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 제1724회 금요조찬포럼 특별강연에서 “오늘 우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역사

적 전환점에서 있다”며 “통합특별시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지역의 운명을 바꾸는 국가적 실험이자 새로운 성장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남광주는 너무 오랜 시간 분리된 채 각자의 한계를 안고 살아왔다”며 “그러나 이제는 갈라져 있던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생활권,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이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남은 햇빛과 바다, 농생명과학과 재생에너지라는 자원을 갖고 있고 광주는 AI와 미래산업,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두 지역의 강점이 결합하면 에너지 생산과 소비, 연구와 산업, 인재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지난 12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 제1724회 금요조찬포럼 특별강연에서 양진석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 및 회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기업이 연결되는 새로운 성장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 당선인은 특히 향후 특별시의 핵심 과제로 ‘산업 대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앞으로의 경제는 에너지가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전남광주는 재생에너지와 AI를 결합한 새로운 산업 모델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바꾸는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을 만드는 일”이라며 “지역이 가진 자원을 산업과 연결하

고 이를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통합특별시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민 당선인은 산업 성장과 함께 시민 삶의 질 향상도 통합특별시의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그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주권정부를 세우겠다”며 “삶의 질이 가장 높은 특별시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에게는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으며, 어르신들은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행정 운영 방식의 변화도 강조했다.

민 당선인은 “이제는 시민이 먼저 길을 만들고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도 최고경영자 한 사람이 모든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서는 지속 성장할 수 없다”며 “행정 역시 시민의 참여와 집단지성을 기반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대중 정부가 국민보다 반 발짝 앞에서 사회를 이끌어 갔다면 지금은 국민이 앞서고 정부가 뒤에서 지원하는 국민주권 시대”라며 “통합특별시 역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지방정부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민 당선인은 강연에 앞서 인사말에서도 통합특별시에 대한 기대와 책임감을 드러냈다. 그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이제 2주 뒤면 공식 출범한다”며 “선거 과정에서 보내준 시민과 경제계의 지지와 조원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상에서 참석자들을 향해 큰절을 올린 뒤 “통합 이후 시민들이 ‘정말 통합하길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양진석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민 당선인에게 축하 꽃다발을 전달했으며, 김동찬 광주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지역경제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에는 전남광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3대 성장 전략으로 △도시 내 탄약고와 유희부지를 활용한 공간혁신과 랜드마크 조성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과 RE100 특화산업단 기반으로 한 에너지 산업 육성 △광주공항 이전부지 개발과 무안공항 활성화 통한 성장거점 구축 방안 등이 담겼다. 또한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통합특별시의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도 함께 제안됐다.

이현구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경총, 민형배 특별시장 당선인에 ‘지역경제 정책제안서’ 전달



양진석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 왼쪽)이 지난 12일 오전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 제1724회 금요조찬포럼에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에게 ‘지역경제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새도약 ‘3대 성장엔진 전략’ 담아
유희부지 활용 카지노 등 복합관광시설 ‘랜드마크’ 조성
분산에너지특화지역 확대·RE100 특화산업단지 등 추진
군공항 이전 부지 복합개발·무안공항 활성화 성장축 마련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가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도약을 위해 공간혁신과 에너지 전환, 공항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는 3대 성장 전략을 제안했다.

광주경총은 12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1724회 금요조찬포럼’에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에게 지역경제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통합특별시의 성장 방향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제시했다.

정책제안서는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마련됐다. 광주와 전남이 각각

보유한 산업과 인프라, 자연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통합의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제안서 내용을 설명한 김동찬 광주경총 상임부회장은 전남광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3대 성장엔진으로 랜드마크와 복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산업혁신, 광주공항 부지 및 무안공항 활성화를 제시했다.

먼저 도심 공간 혁신을 통한 성장전략이 제안됐다.

광주 도심을 위치한 약 65만평 규모의 마복동 탄약고 부지와 각종 유희부지를 활용해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이를 관광·문화·서비스 산업 및 출산 장려 정책과

연계 한다는 내용이다.

제안서에는 민·관 합동 투자유치로 약 2조원의 재원을 마련, 국제 경쟁력을 갖춘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포함된 5성급 호텔(1000객실)과 복합관광시설 등을 유치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을 시민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는 2030년 오사카 국제 카지노 개장에 대한 선제 대응책인 동시에 지역 내 5성급 호텔 부족으로 국제행사 및 관광객 유치 어려움, 매년 국민이 카지노에 지출하는 약 5조원 상당의 외화 유출을 방지하지는 못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저출생과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일괄으로 지역 내 0~10세 아동에게 매월 100만원 수준의 지원이 가능한 복지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성장전략은 에너지 전환이다. 광주와 전남이 보유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중심지로 성장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제안서에는 전남 전역에 조성 중인 재생에너지 기반을 토대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확대와 RE100 특화산업단 조성을 추진하

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하이테크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특별시가 에너지 생산지와 산업단지, 연구개발 역량을 동시에 보유하게 되는 만큼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 번째 전략은 광주공항 이전 이후의 부지 활용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다. 광주공항 이전이 단순한 시설 이전에 그쳐서는 안 되며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광주공항 부지는 미래 산업과 상업·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 개발을 추진하고, 무안국제공항은 사보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해 관광과 물류, 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경총은 이러한 전략이 실현될 경우 광주와 전남의 생활권·경제권 통합 효과가 극대화되고 지역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현구 기자 gnnews1@gwangnam.co.kr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